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의
과학문화 협력사업을 위한 협약식**

일시 : 2009년 6월 17일(수) 오전 11:00 장소 : 한국천문연구원 세종홀 중회의실



● 한국형 외계지적생명체 탐색을 위한 협약식

지난 6월 17일 우리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이하 KAAS)와 함께 'SETI Korea' (한국형 외계지적생명체 탐색;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Korea)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SETI Korea는 우리 연구원이 연세대, 울산대, 탐라대에 설치한 21m 전파망원경 3대의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면 KISTI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민간단체인 KAAS는 이를 홍보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관측 데이터는 양이 워낙 방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KISTI가 이를 전달받아 가입절차를 마친 참가자들의 PC로 배분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PC의 잉여 시간을 이용하여 다운받은 전파신호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SETI 사업은 이미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ETI Korea 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우리 연구원과 KISTI, KAAS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명예위원장은 원로 천문학자인 조경철 박사가 추대됐고, 사무국장에는 연세대 천문대 이명현 박사가 임명됐다. SETI Korea는 대전에서 10월에 열리는 국제우주대회(IAC)때 SF 컨벤션 형태로 공식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SF 작가와 만화가들이 모두 참여할 이 행사에는 영화 '콘택트'의 실제 주인공인 여성 천문학자 타터(Tarter) 박사와 외계생명체 방정식의 주인공 드레이크(Drake) 박사 같은 SETI 전문가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 리더십 교육 실시

우리 연구원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보직자 리더십교육에 이어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책임급 리더십교육"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선임급 리더십교육"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두 교육은 리더십 교육으로서 비슷한 주제였지만 책임급 교육이 조직에 더 비중을 두었다면 선임급 교육은 개인의 비전과 열정을 깨우는 개인에 중점을 둔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책임급 교육 참가자들은 한근태 교수와 함께 어느덧 인생중반에 다다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른 특강 시간에는 팔로워십, 코칭리더십, 갈등 관리 등을 실습과 함께 배웠다. 특히,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가위바위보' 게임은 아주 인상적인 실습이었다. 선임급 교육은 개인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내용으로, 내 자신의 열정을 깨우고 그것을 비전화하여 성공의 길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배웠다. 첫 번째 강연에서 강현구 교수는 자신의 비전을 글로 써서 집중해야함을 강조했으며, 정신과 전문의 이규환 박사는 특강 시간에 정신건강에 대해 강연하였다. 그밖에 팔로워십에 관한 강의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 : Photo sketch 참고)

● 국방운영연구센터 워크숍

지난 6월 24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직원 50여 명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워크숍 형태를 취한 이번 방문 행사에서 박석재 원장은 '하늘'이라는 특강을 통하여, 우수한 계리과학을 계승한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Global Data Center, 우주환경감시실 견학 등을 통하여 국민을 위해 연구하는 분야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주과학 분야 연구영역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GPS 분석정보 수요자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11일 우리 연구원의 우주측지연구 그룹은 본원 세종홀에서 “GPS 분석정보 수요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GPS 분석정보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실제 수요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국가기상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공군본부 전략기획처, 공군 제73기상전대, 전파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주)에스이랩,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각변동, 집중호우, 전파장애 감시를 위한 준수시간 GPS 분석정보 산출과 관련한 연구현황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각 기관의 GPS 분석정보 활용에 관한 발표 및 소개가 있었다. 이후 토의 세션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GPS 분석정보에 관한 요구사항 및 연구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기관 참석자들은 GPS 분석정보 제공시간 단축, 관측점 수의 증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수요자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수요처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GPS 분석정보 관련 연구개발에 반영하여 국가 자연재해감시 정보로서의 효용성을 증대할 것이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지난 6월 8일 은하수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대전 성폭력상담이현숙 소장의 진행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2회로 나눠서 강연하였고 지역전문대 근무자는

원격교육으로 함께하였다. 1시간이라는 강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교육열기가 뜨거웠던 이번 교육에서는 시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성희롱 개념의 변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역사와 성립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또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현숙 소장의 생생한 이야기로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 소간의 복원 제작

지난 6월 15일, 우리 연구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체관측기기인 소간의를 복원하여 본원 마당에 설치하였다. 소간의는 천체의 위치를 관측하고, 낮과 밤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천체관측기기로서, 1434년(세종 16년)에 이천, 정초, 정인지가 세종의 명을 받아 처음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그 원형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소간의는 간의를 보다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그 기능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소형·경량화한,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기기이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구

표와 더불어 조선의 대표적인 천체관측기기로 활용되었다. 소간의는 세 개의 환과 이를 연결하는 기둥, 그리고 밑받침으로 구성된다. 환과 연결된 기둥을 천구의 북극을 향해 기울이면 적도좌표계로, 수직하게 세우면 지평좌표계로 활용할 수 있다. 원형의 소간의는 세 환과 기둥이 한 벌이지만, 현재 전시된 소간의는 이것을 두 벌 제작하여 각각 기울이고, 수직하게 설치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00년에 간의를 복원하였고, 2001년에 앙부일구, 신법지평일구, 2002년에 일성정시의를 복원하는 등 대표적인 고천문관측기기를 복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6년에는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도 복원하였다. (표지 사진 참고)

● 우주 반딧불 축제 참가



우리 연구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도시 별 축제의 일환으로 무주군에서 주최한 “제13회 무주 반딧불 축제”에 참가하였다. ‘반딧불 빛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우리

연구원은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Car)를 이용하여 천문관련 영상물 상영 및 천체관측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2009 세계 천문의 해’ 행사일환으로 전국순회전시 중인 ‘지구에서 보는 우주(FETU, From Earth to the Universe)’를 반딧불 천문과학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 이동천체관 개최



지난 6월 25일 전남 선동초등학교에서 “제15회 이동천체관”을 개최하였다. 이동천체관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천문교육과 천체관측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

다. 행사에서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인에게 천문화 강연, 갈릴레오 천체망원경 제작과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Car)를 이용한 천체관측을 제공하였다.

● 찾아가는 천문·우주 교육

우리 연구원은 지난 6월 4일 대전 회덕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천문·우주 교육”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천문·우주 교육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이 주최 및 주관하여 대전광역시 내외의 소규모 변두리 학교의 학생 및 일반 시민을 직접 찾아가 천체관측 및 별자리 강연 등 천문·우주 교육을 실시하는 행사이다. 우리 연구원은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Car)가 참여하여 별자리 설명 및 천체관측 등을 진행하였다. 회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연중 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은 7월 13일 대전 산내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